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직업교육 성공모델 ‘우뚛’

‘빛고를 직업교육’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피택사업과 시너지...구성원 각종 표창·RISE 재능기부도

동강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가 지·산·학이 연계된 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활발히 펼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동강대에 따르면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지난 2022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시절 원하는 분야

의 전문성을 키우고 미리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 학과는 이태리·일본요리 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연속 산업체 연계 성과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꾸준히 육성해 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P-Tech) 사업에 선정된 동강대는 P-Tech 과정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직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

하는 등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 지구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RISE 사업단과 다채로운 재능기부 활동으로 ‘광주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학과 구성원들의 수상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오명진 학과장이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광주시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학생들은 국내외 요리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수상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

(WACS)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는 금·은·동메달을 비롯해 상을 휩쓸었다.

출전 학생들은 지역 식재료와 세계 조리 트렌드를 접목한 창의적 메뉴 개발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기반 글로벌 셰프’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다.

오명진 교수는 “지·산·학이 연계된 현장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광주·전남권 조리 교육 선도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WACS)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휩쓸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정홍운 보성 벌교여자고등학교장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정홍운 벌교여고 교장, 헌혈홍보위원 위촉

정홍운 보성 벌교여자고등학교장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2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과거 전남 혁신학교 컨설팅단, 보성혁신교육지구 위원 등 왕성하게 활동해 온 정 교장은 현재 대한사립학교장회 부회장으로서 전남지역 사립학교장들을 대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원창역, 여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화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등

2권의 에세이가 있다.

정 교장은 헌혈홍보위원으로서 내년 말까지 광주·전남 지역 헌혈자 예우 증진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헌혈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헌혈, 나눔, 인성교육 등의 소중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동아병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동아병원은 최근 병동 간호사 A씨가 입원 환자 보호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회진 중 환자 보호자의 불안한 행동과 계속되는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즉시 경찰에 신고해 보호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남부경찰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 지역 사회의 모범적인 귀감으로 평가, 감사장을 전달하게 됐다.

우성환 동아병원 대표원장은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안전까지 지켜낸 직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사학연금, 저소득 학생 지원 ‘나눔기금’ 3000만원 전달

소아암 환자·자립 준비 학생
치료비·학업비 등 사용 예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6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연금나눔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해 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나눔기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아암 환자 3명의 치료비와 자립 준비 학생 5명의 학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기금은 교육비, 의료비, 자립 지원 등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한 사학연금 가입자 참여의 기부채널로, 모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23년도부터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고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선생님들



26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학연금나눔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입·통원 치료 중인 어려운 학생들의 의료비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업비를 지원할 수 있

게 됐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 준 사랑의열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나눔기금’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조선대병원, 고난도 단일공 척추 수술 선도

1cm 내외 절개...신경 감압·디스크 제거 등 시행

조선대학교병원이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전내시경적(단방향·Uniportal) 요추 유합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1cm 내외의 단일 절개를 통해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및 케이지 삽입 등 유합의 핵심 과정을 시행하며, 이후 최소 절개를 통한 후방 고정술을 병행하는 고난도 최소침습 수술법이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척추수술의 흐름이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이는 최소 침습 수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해당 기술을 선도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이 수술법은 피부 절개와 근육 손상을 극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전신 질환을 동반한 환자나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고령 환자에게도 폭넓게 적용 가능해 수술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좁은 단일 통로를 통해 모든 수술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술기 숙련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서종훈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가 단방향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충분한 신경 감압과 안정적인 유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부음

▲장국태(향년 85세) 씨 별세. 이점순씨 남편상. 장윤호·장애란·장지영(광남일보 편집국 편집부장)·장현진·장현주씨 부친상. 김광영·조용창·이기상·권의겸씨 장인상 = 26일 오전 7시4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광주 영락공원. 062-250-4455

운세 (음력 12월 9일)

48년생 현재 모습이 가장 나으니 바꾸지 말라
60년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2년생 계획하던 일을 실천에 옮겨라
84년생 모험적인 투자 충동을 참아라
96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올 것

51년생 맞지 않은 이와 함께 너무 부담스럽다
63년생 주변사람에게 카운슬링하지 말라
75년생 사고우려가 있으니 먼 출장을 삼가라
87년생 배우자 이외의 남자 주의하라
99년생 이성 관계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54년생 오해 사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라
66년생 엉켰던 일이 풀려나오니 만사형통
78년생 준비가 철저하면 걱정 없다
90년생 막힌 일 해결되는 하루

57년생 오랜 사고는 귀하게 불리하다
69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된다
81년생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겠다
93년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49년생 아무 이상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라
61년생 여행해 떠나거나 배 타는 곳 가지 말라
73년생 자존심 버리고 시덥고 손잡고 전진
85년생 비교하면 늦어지니 서둘러 선택하라
97년생 잘 살린다면 많은 결실이 따른다

52년생 부동산 먼 안목 보고 추진하라
64년생 돈소문 믿지 말고 주관 가지고 나가자
76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다
88년생 시덥에서 인정받는다

55년생 현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라
67년생 끈질긴 노력에 상대를 감동시킨다
79년생 계획 충실하니 상사에게 칭찬받는다
91년생 포부를 크게 가져야 큰 것 이룬다

58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세
70년생 관용을 베풀면 귀하의 사람이 된다
82년생 주변 여건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94년생 한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62년생 임도 보고 풍도 떠나 집안 단속하라
74년생 의견을 주변사람에게 강요는 금물
86년생 지인으로 예상외에 효과를 얻는다
98년생 마음 비우고 집에서 하루 지내는 날

53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일하는 것이 낫겠다
65년생 아랫사람 도움으로 소원을 이룰 것
77년생 부부 갈등 우려 있으니 양보가 화목
89년생 미진함을 보완하는 기쁨이 있는 날

56년생 유혹이나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된다
68년생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
80년생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 없다
92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뒤라

59년생 앞만 결실을 거두게 된다
71년생 혼자 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83년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낭패를 면한다
95년생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자중하라